

이해찬 “사회통합 선도적 모델 되게 마음 모아달라”

당정청-노동계 충돌 ‘광주형 일자리’ 오늘 결판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까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대기업 임금이 전정 부지로 상승하는 동안 하청업체, 중소기업의 그것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감소하면서 그 간격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해 대기업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열악한 하청업체,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청년들이 외면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어려운 대생적인 한계 속에 청년고용률은 나아질 기미가 없는 실정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야말로 그 대안으로 부상했다. 임금을 낮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세금으로 기반시설, 주거·교육 등 복지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 운영을 노사에만 맡기기보다는 지자체, 지역공동체 등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책임과 위험을 분산시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노동계, 특히 대기업 노조가 중심이 된 민주노총과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투자 의향을 보인 현대차 노조에 이어 기아차 노조는 최대 무기인 총파업 카드를 내밀면서까지 반대에 나서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대기업 노조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잠재돼 있다는 분석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이 낮은 자동차공장이 미칠 파장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 고임금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에 일대 파란이 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정청 총력 지원 나서-이해찬 민주당 대표 “반드시 성공해야”-13일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14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협상 데드라인을 앞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고용 절벽 해소 유일한 대안

마지막 협상 타결 총력 지원

현대차 이어 기아차 노조도

“타결시 파업”...노동계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잘 매듭지어지도록 기업과 노조, 시민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사회통합형인 광주형 일자리를 잘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며 “하나의 좋은 선도적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마음을 모아주길 다시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 24일 민주당 지도부를 이끌고 광주시·현대차 합작투자공장이 들어설 광주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언급한 뒤 하룻만에 정부 여당 대표까지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고용지표의 부진 속에 그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정부·여당의 강한 의지가 연일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 성사시켜야 한다는 절박함도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총력 지원은 만일 무산된다면 그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라는 사실도 그 이면에 존재한다. 정부·여당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확장을 통해 각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 틀어지는 것은 물론 노동계의 사전양해 없이는 향후 어떠한 일자리 정책도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실패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에 이어 기아차 노조도 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가운데)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결시 총파업-13일 밤 지역노동계와 광주시가 내놓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투자유치추진단 합의문’에도 한국 자동차산업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합의문에는 “완성차업체에서의 경직된 임금구조, 장시간 노동시간 관행의 만연, 사회적책임적이지 못하고 소모적인 노사관계, 원하청간 극심한 일자리 격차의 발생 등으로 인해 광주지역을 위시한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 신규투자 기회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 신규 일자리 창출의 기회마저 실종돼 있는 위기상황에 공감하며, 이번에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자투자를 한 별도법인의 설립과 위탁생산의 실시를 매개로 추진단은 신설 법인을 포함해 산단에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수립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완성차업체의 노사 관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자동차공장은 대기업 노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노조는 물론 기아차 노조까지 파업을 내세워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노동계에 그만큼 위기감이 높다는 의미다.

전국국속노동조합 기자자동차지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 “3만 조합원의 고용을 위협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총파업 투쟁으로 분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아차 노조는 “광주시의 좋은 일자리를 반대하거나 기독교를 지키려는 투쟁이 아니다”라며 “광주형 일자리 강행은 기존 완성차 공장 지역과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0일 확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광주시와 현대차간 협약이 체결되면 즉각 총파업하기로 밝힌 바 있다.

한편, 광주시와 현대차는 빛그린산단 내 62만8000㎡ 부지에 광주시 590억원, 현대차 530억원 등 자기자본 2800억원 그리고 차입금 4200억원을 투입해 1000cc 미만 경형SUV를 연간 10만대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협약을 진행 중이다. 부지와 공장 설비를 합쳐 고정자산은 5000억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관리직을 합쳐 1000여 명,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1만2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능일, 두개의 손이 전하는 사랑의 언어



김은영의
‘그림 생각’

(245) 기도하는 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늘만큼은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의 기도제목이 하나일 것 같다.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의혹 등으로 인해 고교 내신과 수시 전형 등 대입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저 목욕치 최선을 다할 뿐. 입시생을 자녀로 둔 부모역시 무탈하고 실수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알브레히트 뒤러(1471~1528)의 ‘기도하는 손’(1508년 경)은 미술사 전체를 통해 누군가를 위해 맡았이 절절하게 기도하는 가장 경건한 손으로 꼽힐 것 같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인 양 신을 향해 마중한 두 개의 손이 전하는 사랑의 언어가 화면 가득 뜨겁게 느껴진다.

실제로 뒤러의 ‘기도하는 손’은 뒤러의 그림공부를 위해 학비 뒷바라지를 하고 늘 기도했던 친구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친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아름다운 우정은 거친 노동 끝에 바스라질 듯 강마른 손등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듯하다. 이토록 단순한 손의 모양이나 동작 하나만으로



알브레히트 뒤러 작 '기도하는 손'

인물의 감정이나 신념이 전해질 수 있다니 다시 보아도 치밀하고 세밀한 묘사가 돋보인다.

당시 미술에서 변방 취급을 받았던 독일에서 태어난 뒤러는 후일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화가. 소년 시절부터 소묘에 능숙한 재능을 보였던 뒤러는 여러 분야의 선구자이기도 했는데 풍경그 자체를 그림으로 그렸던 첫 번째 화가였으며 그 풍경을 판화로 제작해 대량으로 인쇄해 세상에 알리기도 했던 판화가이기도 했다. ‘자화상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자화상을 회화의 한 영역으로 개척했던 뒤러는 국제적 화가로 당대에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광주비엔날레 정책기획실장·미술사부처>

문대통령 “평화 프로세스 큰 진전 있을 것”...푸틴 “양국 긴밀협력” 싱가포르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두고 있는데, 그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 호텔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평화의 큰 흐름을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 푸틴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측에서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이 지난달 한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이뤄지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지난주 한국에서 열린 제1차 한러지방협력포럼도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국의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다”며 “행사가 성공할 수 있게 국

장관을 통해 축사를 보내 대목하게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또 “이렇듯 지금 양국은 교역량과 인적교류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 간 협력,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이 이뤄지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좋은 협력이 계속 이어져 수교 30년이 되는 2020년에는 교역량 300억 달러, 인적교류 100만명 달성 목표를 반드시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특별정상회의에 한국과 북한이 함께 참석하면 의미가 더 살아날 것이며, 이런 노력이 가시화되길 바란다”며 김 위원장을 초청하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제안에 “주목되는 제안”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양국은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특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로, 양국은 늘 이야기 고리가 많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대표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광주지사 1688-1104
광주첨단점 062)974-3050

롯데관광 크루즈 전세선 운항 10주년 특별기획!

당신의 바다는 어디인가요?

대한민국 크루즈 선도 기업

- ▶ 대한민국 크루즈 승객 1위 기업
- ▶ 국내유일 10년 연속 크루즈 전세선 운항
- ▶ 아시아 최고 크루즈 여행사 상 최우수상

GMTC

bto 부산관광공사

안전행만공사

전세선 10주년 조기예약 이벤트

선실우선배정 + 최대 30만원 할인

11월 30일까지 예약 및 완판자에 한함

4월 26일 인천항 출발

인천항·상해·후쿠오카·부산항

한국/중국/일본 전세선 6일

내 측 188만원부터 발코니 248만원부터

오션뷰 218만원부터 스위트 328만원부터

5월 1일, 2일 부산항 출발

부산항·속초항·블라디보스톡·사카미나토·속초항

한국/러시아/일본 전세선 5일/6일

내 측 188만원부터 발코니 248만원부터

오션뷰 218만원부터 스위트 328만원부터

5월 6일 속초항 출발

속초항·블라디보스톡·오타루·아오모리·부산항

한국/러시아/북해도 전세선 7일

내 측 198만원부터 발코니 258만원부터

오션뷰 228만원부터 스위트 338만원부터

이색적인 감성 상해

규슈 최대의 중심 도시 후쿠오카

가장 가까운 유럽 블라디보스톡

정난꾸러기 요괴마을 사카미나토

극동문화의 블라디보스톡

아름다운 분위기의 오타루

아름다운 경관 아오모리

가경포항내역 크루즈 선실로 및 항구세,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선박경비(관방) 있음/없음 상함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함 수 있음 선택경비는 선실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이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여행경비 입금은 고객별 전용계좌로 가능합니다. ●종로구경: 일반여행업 제457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업 영인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타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50만원 가입 ●여행보험처리센터: 1588-8882 ●여행준비지: 부산항/속초항 ●최소출발 10명 ●크루즈 221실 사물임대/객실 제외 ●교통편: 항공, 버스, 크루즈상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 입장권, 숙박권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018 인기크루즈 BEST 3

베스트셀러 동남아 크루즈 7일

1,870,000부터 ₩US\$118 [선택관광 있음]

▶12/9~ 매주 일요일 출발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푸켓/상가포르

●90일전 예약시 1인 10만원, 동남아시아 No.1 크루즈 일정

●14만 톤 로얄캐리비안 보이저로 탑승

조기예약 20만원할인 지중해 크루즈 10/11일

299만원부터 ₩770/80유로 [선택관광 있음]

서부 지중해 (남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11/23 2019.1/4~ 매주 금 출발

동부 지중해 (그리스/크로아티아/이탈리아) ▶11/16 2019.3/29~ 매주 금 출발

●유럽 NO.1 코스타 크루즈 탑승, 밀라노 추가 관광 + 일급호텔 숙박

내년에 단 한번 세계일주 크루즈 113일

3,300만원부터 ₩US\$40 [선택관광 있음]

▶2019. 1/7 [단회 출발확정] ●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모로코/브라질/칠레/호주 등

●크루즈 전문 인솔자 동행, 9만톤 급 코스타 루미노사호 탑승